



김준형

서울 보도 / 21년 입사

“힘 있는 조합을 원합니다”

“MBC 힘내세요!” “엠빙신이 여길 왜 와?”
지난 가을, 서울 한복판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MBC 스티커가 붙은 카메라로 우리 뉴스에 대한 ‘가장 날 것의 피드백’이 따라옵니다. 주머니에 비타500이 들어올 때도, 태극기가 머리를 강타할 때도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며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 뉴스 파급력 장난 아니다.’ 묘하게 힘을 얻습니다. 외면 받던 뉴스가 힘 있는 뉴스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속에 ‘공정방송 사수’를 외친 치열한 투쟁을 압니다. 하지만 총파업 종료 후 입사한 우리 세대는 당시 결의하고 행동한 구성원만큼 그 투쟁을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심에서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집니다. 다시 MBC에 비바람 몰아칠 때, 우리가 가장 끊어지기 쉬운 고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MBC의 투쟁을 밖에서 지켜본 세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소신을 고민하고, 구성원이 지켜온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바랍니다. 힘 있는 뉴스는 연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를 연대의 한 축으로 이끄는, 힘 있는 조합이 되길 바랍니다.



이승섭

대전 보도 / 11년 입사

“하나의 MBC, 하나의 조합이 되길”

“MBC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대통령실이 MBC 취재전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뒤, 취재 현장에서 응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커피숍 사장님은 힘내라며 빵 하나를 얹어주었고, ‘MBC는 인터뷰해야 한다’며 기꺼이 취재에 응해 준 제보자들도 만났습니다. 지역에도 MBC가 있고, MBC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MBC에 지역은 없는 것인지 되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임기가 한참 남은 일부 지역MBC 사장이 본사의 신임 감사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모르지만, 본사 보도국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이른바 ‘애기가 되는’ 제보는 본사 기자가 직접 내려와 취재하고는 했습니다. 지역이 싫은 것인지, 못 마더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방송을 지키고,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15기 집행부를 맡아주시는 본부와 각 지부 노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박수지

서울 기술 / 17년 입사

“조합원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길”

2021년 조합편집부 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부끄럽지만) 그제야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원을 대신하여 이익을 보장하고, 의견을 전달해 주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시 기술부서 부지부장이셨던 윤희석 선배님을 비롯하여 많은 집행부 선배님들을 뵈고 보니 노조라는 곳이 훨씬 무겁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같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생각과 환경들이 만나다 보니 진심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끼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만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의 MBC와 지금의 MBC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의지가 되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나가는 동기들, 그리고 계속해서 MBC의 문을 두드려주는 후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조합이 있었고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앞장서는 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을 모은다면 각기 다른 생각과 환경들이 만나더라도 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합원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아낌없는 배려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운 조합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서동군

광주 사업 / 19년 입사

“거침없이 소통하고 거침없이 투쟁하자”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15기 광주지부의 슬로건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로 ‘거침없다’라는 표현을 언제 들어봤을까 싶습니다. 이 단어가 꽤 낯설기도 하지만 15기 노동조합의 힘찬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인 듯 가슴 한 편을 웅장하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곧 ‘표현의 자유’를 뜻합니다.

그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공정방송의 가치와 언론 자유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배 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시대의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공영방송 MBC가 국민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옛된 티가 많이 남은 5년차 조합원이 15기 노동조합에게 바랍니다. 잡아먹을 듯 덤벼오는 파도에 거침없는 소통과 존재감 있는 행동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주십시오. 때로는 밤하늘의 북극성이 되어 앞길을 안내하는 희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십시오.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세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생존을 논하는 지역과의 협력에도 한껏 힘써주십시오.

이토록 바라는 것이 많은 조합원이지만 진심 어린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조합원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된 보편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저 또한 거침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철

서울 영디 / 17년 입사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 주길”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죠.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조금은 불편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들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역할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 뒤 불어오는 첫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 줄 조합으로 남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비에 젖은 축축한 신발을 신더라도 나아가기 싫은 긴 여정을 떠나야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멈출

수 없기에 모두의 동반자가 되어 줄 집행부의 임무가 막중한 시기임을 조합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방식과 품질의 강화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플랫폼의 인지도 강화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미지 개선 또한 모색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언론과 신뢰받는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투-트랙을 긴밀하게 유지하며 상호 교류한다면 우리의 조합은 그 어느 곳보다 더 조화롭고 강한 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서로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나누어서 그 행복은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기와 일정을 이어가실 집행부에 응원의 메시지 전합니다.



이상근

원주 경영 / 18년 입사

“조합원의 처우와 화합에 더 노력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입니다. 미디어만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노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시간의 수당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기에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새 집행부에게 바랍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조금은 더 신경 써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새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공정방송을 보장하라고, 다른 누구는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조합원들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0명의 조합원이 모이면 100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됐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는 조합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작게는 각 직군별로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대단한 부귀영화나 자신의 안위는 아닐 것입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화합의 장, 그리고 모두의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짝 빛나고 마는 그런 집행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뒤에서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15기 집행부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심푸름

서울 편제 / 22년 입사

“MBC 진짜 주인은 노동자”

운이 좋게도 신입사원을 대표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수습 해제가 된 후 가장 처음 한 일은 근로 형태를 재량근로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서를 썼습니다. 사실 조합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열정이 있거나 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에 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되었으니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서를 쓰고 온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야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조합에 가입했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시 수습 해제가 된 시점을 떠올려보면 제가 재량근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조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일한 만큼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합은 항상 사측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흔히들 MBC는 주인 없는 회사라고 하지만, MBC의 진짜 주인은 노동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기에 그만큼 높은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렇기에 창의적이고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MBC가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로 남을 수 있게끔, 특정 개인과 특정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지금의 MBC를 위해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노동자이자 MBC의 조합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민희

부산 보도 / 21년 입사

“조합원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매일 현장에 나가 취재하며 하루하루 배워가느라 정신없는 저런 차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본부와 지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내외 활동을 할 때 또는 이후라도 연차가 낮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창구가 있다면 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좀 더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활동이 외부에 MBC를 대표해 내는 성명서 같은 형태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낸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시민사회, 시청자가 MBC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열선 기자고, 그만큼 집행부에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강화’가 뻔한 표현 같기는 하지만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이 존재감을 갖는 데는 결국 이 뻔한 말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MBC 취재진과는 통화 안 한다’는 말을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대놓고 하고, 최근 MBC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사건을 고려하면 15기 집행부의 행보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현주

서울 경영 / 07년 입사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기회를”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왔고, MBC에도 15기 집행부가 꾸러졌습니다. 신입 집행부에 어려운 책무를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15기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방송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회사 경쟁력이 하락하다 보니 많은 구성원들이 앞만 보고 옆을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부문, 연차, 성별 등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 명의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천명이 넘는 MBC 구성원의 마음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물론 모든 구성원이 MBC의 발전을 바란다는 점은 한마음이겠지요.)

다른 관점과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으며 업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구성원 통합의 영역과, 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간 소통의 영역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조합원 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사장 선임 과정 되짚기

“구성원의 목소리는 없었다”

지난 2월 23일 안형준 사장이 MBC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안 사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 등이 진행되면서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평가는 미처 이뤄지지 못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사장 선임 절차가 여러 모로 중요했던 만큼,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MBC 구성원의 의사 반영 ‘全無’

사장 선임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결정한다. 방문진은 1차 서류면접을 통해 사장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하고, 새롭게 도입한 시민평가단에서 2배수로 줄인 뒤, 최종면접으로 신임 사장을 내정했다. 이 과정에 내부 구성원이 참여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2020년 사장 선임 당시 최종면접에서 적용했던 내부 구성원의 공개 질의 기회마저 없애 버렸다.

조합은 사장 선임 절차에 앞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은 바 있다. 전체 응답자 354명 중 86.2%인 305명이 내부 구성원의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장 선임 어느 절차에서든 구성원의 평가가 반영되기를 바랐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사회와 시민평가단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정량적 평가 점수가 동일한 비율로 반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합은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평가를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정량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작 신임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MBC를 만들어갈 구성원들은 시민평가단과 이사회에 결정을 수동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에 그쳤다. 구성원들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다보니 사장 후보들이 조합의 공개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불편한 현실과도 마주했다.

시민평가단, 구성원 평가 보완돼야 완성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시민평가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15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평가단은 사장 후보 3인의 정책 발표를 듣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했다. MBC 사장 선임 절차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했다는 자체로 시민평가단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다. 시민평가단 투표는 1인 2표제 방식으로 적용됐는데, 이 경우 정책 발표의 내용과 수위가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비전보다는 득표의 유·불리를 고려해 정해질 수 있다는 틈새가 생긴다. 또 MBC의 상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단 한 차례 후보들의 정책 발표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점도 되짚어 볼 부분이다. 숙의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토의 시간과 기회를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평가단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증과 평가는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사장 선임 방식에 있어 시민평가단과 내부 구성원, 방문진 이사회의 평가가 일정 비율로 반영되는 방식 또한 향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민실위 메모

김성태 오보로 드러난 ‘기본’의 부재

3월 31일, 뉴스데스크는 부끄럽게도 ‘사과 방송’으로 시작해야 했다. 발단은 <‘낙하산’ 앉혀려고?.. KT 정관 만지작>이란 제목의 전날 경제팀 리포트였다. KT 사장 선임 과정의 정치권 압력을 지적하는 기사에서 사장에 지명한 비례대표 출신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동명이인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뒤바꿔 보도한 것이다.

팩트 체크와 오보 대응의 총체적 부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누락됐다. KT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사자든 확인 한번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보였다. 취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담당 기자와 경제팀장은 동명이인 김성태 전 의원을 생각지 못했다면서,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뒤늦은 오보 수정도 문제다. 당일 보도 뒤 팩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지만, 실제 기사 수정은 다음 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최초의 수정 내용도 문제다. 김성태 전 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같이 혼동할 수 있어 기사를 수정했다는 내용만 기사 끝에 붙였을 뿐, 오보를 냈던 사실, 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편집회의도 문제였다.

당일 뉴스데스크 톰으로 사과 방송을 해야 했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아침 편집회의에선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뉴스룸 국장과 경제팀장은 이와 관련해, 사과 방송의 수위가 정해지지 않아 혼동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송고본 삭제, 의도 상관없이 준칙 위반

또 다른 문제는 오보 당일 밤, 내부 뉴스시스템에서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편집부는 오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송고본과 출고본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리포트의 영상 원본이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고, 구성원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기사 삭제로 불 문제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내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 위반이다. 해당 준칙의 기본 원칙 ‘투명성’ 조항에는 ‘보도 기사의 작성, 수정, 편집 및 취사선택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실위는 뉴스룸 국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기사는 3월 31일 오후 늦게야 복원됐다.



취재와 기사 작성, 데스크, 오보 수정, 사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였다.

면밀한 경위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뉴스룸 구성원 전체가,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위원장의 편지

소통 그리고 신뢰...흔들리지 않는 노동조합

1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집행부는 사무처 인수인계 작업과 함께 15기의 사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부와 서울 지부 대의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일정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부문별 모든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들이 나서주셨습니다. 지역에서는 9개 지부의 임원식이 진행됐습니다. 모두 찾아뵙어야 했지만, 일정상 춘천, 전주, 목포, 부산 지부에 다녀왔습니다. 2주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15기 집행부의 첫 번째 노보입니다. 첫 노보라는 점에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의 원칙에 충실하게 편집하려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뒀고, 사장 선임 구조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더 좋은 보도를 위한 자성의 글도 실었습니다.

부문별, 지역별로 조합원 아홉 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글에 담긴 키워드는 '소통'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달라라는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소통을 통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외풍에 맞서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들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무리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무리수'는 계속될 겁니다.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고, 해임 시도도 이어질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가관입니다. 무차별적 자료 요구로, 사실상 MBC를 감사하러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주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소통하며, 거침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찬

메가MBC추진단 해체, 불통(不通)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미약을 넘어 참담하다. 바로 ONE-MBC 추진 과정을 일컫는 직설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다. 2년 전 회사는 선제적으로 MBC 가나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ONE-MBC라는 담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에 맞춰 노사가 정책의 연착륙과 현실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그러나 제안을 했던 회사는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핵심 기구인 메가MBC 추진단을 해체했고 신임 사장이 바로 추진단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기에 과정을 되짚어보자. 박성제 전 사장과 안형준 전 단장은 지역사를 순회하며 충만한 희망을 선사하고 ONE-MBC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강제적 광역화가 아닌 자율적 통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인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 구성원들을 안심시켰다. 또 부쩍 메말라가는 지역사의 제작 여건까지 언급하며 지역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란 화두까지 던지면서 오랜만에 가슴 뛰는 순간을 맞기도 했다. 특히 서울과 지역의 이질감을 동질감으로 바꾸겠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던 외침에는 결연함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맞춰 강원권과 제주권 등 몇몇 지역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ONE-MBC의 첫걸음이 될 찬반 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물론 여물지 않은 정책을 토대로 지역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조차 오뎅이 노동조합의 몫이었고 최근까지도 불명확한 추진 과정을 재차 확인하고 지역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사를 향한 불신의 늪은 깊이를 더해갔다.

내심 안형준 전 단장의 사장 출마를 묵도하며 뒤처지고 가라앉았던 ONE-MBC 전략에 신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은 추진단 해체와 함께 여지없이 나뒹가졌다. 안 전 단장은 사장 출마를 앞두고 메가MBC 추진단장이란 경력을 공공연히 알리는 것과 다르게 사장이 되자마자 정책의 소통과 조율을 맡고 있던 추진단 해체를 일방적 통보로 갈음했기 때문이다. 미답지 않았던 ONE-MBC의 첫걸음이야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추진단 해체마저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마무리한다면 그동안 추진단과 본사 경영진에게 보냈던 지역 구성원들의 신뢰를 사탕발림으로 저버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한다. 이번 추진단 해체와 관련해 안형준 사장이 직접 해명하라. 그것이 바로 함께 꾸며왔던 ONE-MBC를 완수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며 소통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안 사장의 포부가 임기 초부터 희석되지 않을 특단의 조치다.

우리는 또 요구한다. 지역사와 관련된 정책을 가버리지 마라. 추진단장 때부터 지역사의 실정을 함께 고민해왔다고 자부한다면 여설론 전략과 대책으로 또다시 지역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ONE-MBC를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취임사를 통해 지역성이 곧 공공성이라며 자부한 바와 같이, 지역사가 공영방송의 뼈대를 유지하는 버팀목인 것을 각인하고 자신의 경영철학에 불통(不通)이란 불순물이 스며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15기
본부 및 서울지부
대의원 선거 일정**

선거구 열람 : 4월 6~7일

투 표 : 4월 11~14일

당선 확정 : 4월 14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16개 지부일동

(강원영동,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춘천, 충북, 포항)